

### “1차보다 후퇴했다”

## 금속노조, 사용자 측 2차 제시안 강력 규탄

2일 6차 중앙교섭 ... AI·정년연장 뒤로 미룬 채 대정부 요구안마저 후퇴



금속산업사용자협회가 2차 제시안에서도 인공지능(AI) 도입과 정년 연장, 금속산업 최저임금 등 핵심 현안 요구안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안마저 1차 제시안보다 후퇴한 안을 제출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회가 2일 오후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6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들은 5차 중앙교섭에 이어 초기업 교섭 활성화 관련 추가 안을 냈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조가 제시한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사공동 대정부 요구’를 ‘산별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로 바꾸고,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산업별·지역별 교섭 촉진’ 문구를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으로 수정했다.

이어 노조 요구안 1항인 ‘정부는 사회 공익성이 있는 금속 노사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합의 효력을 산업·업종·지역으로 확장하기 위

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한다’를 ‘금속산업 중앙교섭 합의사항 중 공익적 사항에 대한 산업적 효력 확장이 개별 기업의 교섭 자율성, 기업 규모별 지급능력, 업종별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한다’로 변경해 제출했다.

또한, 2항 ‘교섭 참여 사업장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사측은 지부집단교섭을 제외하고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에만 인센티브를 우선

제공하겠다는 1차 제시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마찬가지로 3항 ‘노사단체 참여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4항과의 중복을 이유로 삭제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 측은 “요구안의 핵심은 산별 교섭을 통한 산업적 협업 확장”이라며 “개별 기업의 교섭 자율성, 기업의 지급 능력, 업종별 경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취지”라고 제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사용자 측의 2차 제시안에 대해 “1차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으로 느껴진다”며 “효력 확장의 핵심은 격차를 좁히고 노동조건을 평준화하는 것인데, 개별 기업의 지급 능력이나 경영 여건 같은 특수성을 굳이 명시하는 것은 요구 취지에 맞지 않으니 삭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 실장은 대정부 요구 제목을 ‘산별교섭’으로 수정한 사용자 측을 향해 “우리 스스로 정부 역할을 끌어낼 명분을 약화시키는 꼴”이라며 “요구안 표현 역시 ‘산업 경쟁력 강화’ 보다는 ‘국내 산업 일자리 지속 가능성’ 같은 방식으로 정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3항 노사단체 참여 거버넌스 구축 삭제에 대해서는 “요구안 실현을 위한 노·사·정 협의의 구조인 4항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손범국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사 대정부 공동 요구안 3항 노사 단체 참여 거버넌스 구축’ 원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손 지부장은 “5차 교섭에서 3항 삭제에 대한 심사숙고를 요청했음에도 2차 제시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3항은 우리 사회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교섭 효과가 미치도록 노사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는 취지인 만큼 원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사용자협의회는 인공지능(AI)과 정년연장, 금속산업 최저임금 관련 안을 내지 않았다. 사측은 지역 의견 수렴 등 안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추후 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초기업 교섭에 대해 “정부 관계자도, 금속노조도 아직 가본 적이 없는 길인 만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가 제역할을 하도록 권고하자는 취지”

라며 “차기 교섭에서 더 진전된 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들은 이미 3중 교섭의 부담을 안고 있다”며 “여기에 초기업 교섭까지 확장되면 사용자가 감당해야 할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언급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경영 여건 고려는 노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노조가 요구한 ‘노사단체 참여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노사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자는 취지라면 사용자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민해서 차기 교섭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7차 중앙교섭을 9일 대구 대동지회 회의실에서 연다.